

고전소설을 활용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 방안
— 김만중의 〈구운몽〉을 중심으로

신다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

* 이 논문은 제82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4.8.10.)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형석 선생님과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 방향
- III. 문화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 제재로서 <구운몽>의 의미
- IV. <구운몽>을 활용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
- V. 마치는 말

I. 들어가는 말

본고의 목적은 고전소설을 활용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 신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적 문식성 신장 방향을 탐색하고, 한국어교육 제재로서 <구운몽>의 의미를 검토하여, <구운몽>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을 구안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 자체가 문화의 일환이며,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Stern(1992)은 ‘문화를 제외하고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화는 언어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맥락’이라고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보여준다(민병곤·김호정·구본관·민현식·윤여탁·김종철 외, 2020: 405). 또한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타자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적 접근이 대두된 바 있다.

이러한 동향 아래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화에 대해 특정 시각을 견지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문화를 토대로 한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화는 외연이 매우 넓은 용어이다. 그것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물질양면에 걸친 생활의 양식과 내용, 즉 인간의 삶 대부분을 포괄한다. 이에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그 방안으로 제기된 개념이 역량으로서 ‘문화적 문식성’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뜻하는 문식성 개념이 2000년대 이후 확장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문화적 문식성은 문식성이 여러 맥락 요인과 결합하며 그 의미가 확산되던 중에 사회문화적 요소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박은진, 2015: 134).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은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해석 및 실천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김혜진, 2017: 37), 이렇게 보면 문화적 문식성은 지식 차원에서 목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해당 문화에 참여하면서 가치 체계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새롭게 발견하며 더 나아가 문화를 생성하고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역량을 말한다. 이때 문화적 문식성은 문화 수용 및 생산은 물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문화적 문식성’ 개념을 통해 문화는 삶 전반에 내재된 폭넓고 모호한 내용에서 교육 가능한 ‘역량’으로 명료하게 규정될 수 있었다. 이후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 관련 연구는 다른 문식성의 개념과 함께 소개되고 재개념화되거나(유현정, 2018; 윤여탁, 2013), 구체적인 작품을 사례로 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거나(김혜진, 2017, 2018), 교재에서 작품의 활용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공나형·이경화·전성규, 2023)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면 연구 성과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제재로서 고전 소설에 주목한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은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된다. 문학은 인간과 시대의 본질을 탐구하는 언어 예술로 문

학 작품에는 당대인들이 사용하는 생생한 언어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문학의 경우, 다채롭게 창작되고 전승되고 변주되면서 역사적으로 흘러온 한국인들의 사유와 가치 체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한국인과 그 민족적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고전소설 중에서도 <구운몽>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제재이다. 한국의 고전소설이 보통 유교 이념 및 윤리 의식을 천착하는 것과 달리, <구운몽>은 윤리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과 삶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고전소설의 주제를 표층적으로는 유교 이념, 심층적으로는 유교에 기반을 둔 당대 사회 질서 및 계급 구조에 대한 저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 <구운몽>에서는 유교 이념에 예속되지 않은 채 양소유의 재자가인(才子佳人)적 면모를 보여주는 데 치중하고 성진의 각몽 과정을 통해 현세의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유는 유교적 현실을 포함한 제반 현실의 초극(超克)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이상택·박희병·임치균·조광국·이주영·정병설 외, 2005: 130-143).

한국어 학습자는 물론, 한국인들까지도 한국의 문화 및 이념의 뿌리를 유교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교 이념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를 유교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불교나 도교 역시 한국의 문화 및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구운몽>은 유교 이념을 떠나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성찰해 온 문제인 ‘현실의 초극’을 탐구한 작품이란 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더욱이 <구운몽>은 다기한 서사 요소와 각몽에 집약된 사상성 등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게 함으로써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정보미, 2012).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구운몽>을 제재로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삶

의 본질과 그 의미를 궁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고전소설 <구운몽>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식성 교육의 한 방향으로 박은진(2015)에서 제안한, 지식이 학습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모델(Acceptance Model)’과 학습자가 지식을 공유해 나가며 문화를 형성하는 ‘공유 모델(Sharing Model)’을 포괄하는 교육적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는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에 목표 문화 이해를 넘어 가치 판단과 해석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까지 포용한다면 공유 모델이 추구하는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적 관계 속에서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을 구안한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넘어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더 나아가 적극적 실천을 포함하는 고차원적 문화적 문식성은 특히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바, 교육 대상을 고급 학습자로 상정한다.

II.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 방향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신장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의사소통 역량은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 능력, 상호 문화적 능력,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화용 차원까지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중·고급 학습자는 목표 문화 이해, 자국 문화 성찰, 문화 간 교섭 및 상호 비판적 인식 등 매우 심도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갖춰야 한다(김혜진, 2017: 1).

그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소통의 기저에 자리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국 문화를 성찰하며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양자를 교섭하는 문화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에 문화를 체계적

이고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제안된 개념이 ‘문화적 문식성’이다. 문화의 외연이 넓어 문화교육이 막연하고 모호한 면이 있었는데, 문화적 문식성 개념을 통해 문화를 교육 가능한 역량으로 실체화할 수 있었다.

문화적 문식성의 원개념은 ‘Cultural literacy’이다. Hirsch는 『Cultural Literacy』(1988)에서 문식성을 갖춘 미국인들이 알아야 할 5000개의 지식 목록을 제안하면서, 문화적 문식성을 특정 사회에서 공유된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Giroux와 Harris & Hodges 등은 다수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전제로 한 문화적 문식성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Provenzo(2005)는 Hirsch의 관점을 비판하고 문화적 문식성이 역동적인 것이며 민주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논의하였다(박은진, 2015: 150-151).

이처럼 미국의 문화적 문식성 연구는 초기 지식 목록을 강조한 것에서 문화적 문식성의 이데올로기 측면을 제시하고 문화 간의 역동적인 교섭으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국내의 국어교육/한국어교육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인기(2002: 17-18)는 문화적 문식성을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일상의 현재적인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교섭하는 것으로 보았다. 최홍원(2015: 605)은 문화적 문식성이 문식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입하고 반영한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나아가 문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까지 포괄한다고 논의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은 ‘문화’를 중심으로 다문화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역량으로 수용되었고(윤여탁, 2013), 상호 문화적 능력, 문화 능력, 다문화 능력 등과 통합하여 논의되기도 하였다(김혜진, 2018: 372).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적 문식성을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기능, 실천 및 성찰 등 다차원적인 것으로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박은진(2015, 2018)에서는 문화적 문식성 교육의 실체가 여전히 지식 측면으로 고정되어 학습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도식적 방식에서 탈피하

지 못하였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학습자가 속한 집단의 문화와 기존 사회 집단 간의 문화적 교섭을 충실히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요구된다. 일례로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고전 작품을 ‘산물’로 보고 고정된 ‘공유된 지식’으로 문화적 문식성을 교육하였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의 작용이나 사회문화적 실천의 측면 등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박은진(2015, 2018)은 문화적 문식성 교육에서 사회가 공유하는 지식을 학습자가 수용하는 접근을 ‘수용 모델(acceptance model)’이라 한다면, 학습자가 문식 자원을 활용하고 공유하며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접근을 ‘공유 모델(sharing model)’이라 할 수 있으며, 공유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공유 모델에서는 교육을 통해 전수되기를 의도하는 문화와 학습자가 이미 속한 문화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에 학습자가 속한 문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다른 문화와 교섭하여 문화적 지식을 공유해 나가는가를 중시한다. 즉 학습자가 특정한 주도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동일한 층위에 놓인 다른 문화를 공유하는 구도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다른 문화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지식을 공유하고 역동적으로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하며 문화 창조 역량을 확대하도록 교육한다. 단, 공유 모델을 취한다고 해도 학습자가 목표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다는 면에서 수용 모델 역시 필요하다. 문화적 문식성 교육은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적인 관계 속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설계할 때에도 유의미하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적 문식성은 정형화된 지식을 넘어 역동적인 문화의 교섭이라는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목표 문화로서 한국 문화의 역동적인 교섭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를 성찰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용 모델 관점에서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중핵적 문화 지식(core cultural knowledge)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중핵적 문화 지식이란 자국 문화에 비해 한국 문화가 낮은 한국어 학습자가 목표 문화 이해 및 목표 언어 기능 습득을 위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항존성과 보편성이 인정되는 문화 요소를 의미한다(김혜진, 2017: 37). 그와 함께 공유 모델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교섭 속에서 문화를 공유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하고 문화 창조 역량을 신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공유 모델을 취할 때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속한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접면이 매우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공유 모델을 취할 때 학습자의 하위 집단 문화라 해도, 그 역시 한국 문화의 부분이므로 주도적인 문화와 일정 수준에서 공통적 성질을 갖는다. 그와 달리,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자국 문화와 목표 문화로서 한국 문화는 포함 관계에 있지 않다. 인간 문화의 전형성(문화의 보편성)으로 인해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공통적인 면이 있으나, 그 접면은 국어교육 상황에 비해 매우 작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공유 모델은 동등한 층위이면서 상호 간에 이질적인 두 문화가 역동적으로 교섭하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¹⁾

이 연구에서는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을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 교육의 기본 구도로 삼고 문화 생성적 측면을 중시하는 문식성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의로는 김혜진(2017)을 참고한다. 이 논의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을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해석 및 실천 능력’으로 정의하고 ‘배경지식, 경험지식, 가치와 가치 판단’을 그 구성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문식성 교육 원리를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문

1) 문화 관련 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위문화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를 지배적인 문화로 지칭한다. 이는 문화 간의 교섭 과정에서 권력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 상황에서는 목표로서 한국 문화와 외국인 학습자의 자국 문화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하므로 한국 문화를 ‘지배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 실행과 적용'으로 제안하였다.

김혜진(2017)에서는 '수용 모델', '공유 모델'이라는 관점을 직접 원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문화를 수용 및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발견 및 해석하는 과정, 문화를 실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문화적 문식성 교육의 단계에는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적 구도가 내재되어 있다.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가 문화 산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수용하는 수용 모델에 해당한다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은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활성화하면서 한국 문화의 기저에 내재된 문화 관점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수용 모델과 함께 공유 모델의 성격이 내포된다. '문화 실행과 적용'은 공유 모델로서 성격이 강한데,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 관점을 구성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적 관계를 기본 구도로 삼고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문화 실행과 적용'이라는 교육 원리를 근간으로 한국어교육에서 <구운몽>을 제재로 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III. 문화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 제재로서 <구운몽>의 의의

한국어교육에서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 구도에서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설계할 때, 수용 모델 관점에서 학습자가 목표 문화로서 한국어 문화에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한국 문화의 가치 체계를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 모델 관점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습득한 한국어 문화의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자국 문화와 한국어 문화를 역동적으로 교섭하면서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여기서 문화 가치 체계란 해당 집단 구성

원들이 선호하는 특정 행동 양식의 조직체 혹은 신념의 조직체라 할 수 있다. 문화 가치 체계는 서로 다른 문화 간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 2014: 1261).

Ⅱ장에서 살펴보았듯 문화적 문식성 교육에서 문화 가치 체계는 지식 목록으로 전달될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문화 현상으로서 경험하면서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화나 드라마, 뉴스, 광고 등의 영상 텍스트나 실제 한국어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등을 두루 다룰 수 있겠으나, 문학텍스트가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문학텍스트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 관습과 제도 등이 총망라되어 있어 해당 공동체의 문화 및 가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문화 양식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학텍스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문화를 교섭하고 성찰할 수 있다(김혜진, 2017: 2).

특히 고전소설은 한국인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공유한 지식과 가치, 관습, 제도 등이 내재되어 있는 문학텍스트이다. 고전소설에는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한국 고유문화의 원형 및 가치 체계가 담겨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고전소설을 통해 한국 문화가 어떠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전통이 어떻게 전승되고 유지되어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전소설의 심층적인 주제를 탐구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사회의 주체로서 삶의 방향을 성찰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전소설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새롭게 지식이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여 현대소설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김혜진, 2017: 2; 김혜진, 2018: 374). 이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모색해 왔으며,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고전소설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한국 문화의 가치 체계는 유교적 가치와 질서에 편중된 면이 있다. 고전소설 중에 한국어교육에서 주로 제시되

는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이다. 이 작품들은 한국의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의 대표적 산물로 한국의 가치, 제도, 관습 등을 총망라한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진다. 한국에서 유교는 오랫동안 도덕과 윤리의 근간이 되어왔으며, 언어는 물론 사회 구조, 가치 체계, 일상생활, 예술 등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적 기반이다. 실제 한국인이나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의 원형으로 유교를 떠올린다. 그러나 유교만으로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유교와 함께 불교나 도교 역시 한국 문화의 원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이재룡, 2021: 336-337).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 몸과 마음의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와 비움을 통한 마음의 절대적 자유, 자연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도교는, 수양을 통해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조화를 중요시하는 유교와 분명히 변별된다. 불교의 인과응보, 해탈, 연기설(緣起說), 자비 등의 가치, 도교의 도(道), 기(氣), 무위(無爲) 등의 관념은 지금까지도 유교 못지않게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이나 삶의 태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우치>(최동훈, 2009), <신과 함께 -죄와 벌>(김용화, 2017), <더 글로리>(김은숙·안길호, 2022), <파묘>(장재현, 2024)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중에도 불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이 내재된 작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을 다룰 때 유교 이념에 기반한 작품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한국 전통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균형성 있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는 고전소설 작품이 바로 <구운몽>이다.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의 걸작으로 조선 후기 내내 폭넓은 독자층에게 지지를 받았고 후대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고전소설의 최고봉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정길수, 2010: 11). 대다수 고전소설이 유교 이

념에 예측된 것과 달리, <구운몽>은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삶의 깨달음과 성찰을 강조함으로써 유교 이념을 넘어 확장된 범주에서 한국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창작된 고전소설이 유교 이념을 근간으로 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춘향전>은 주제가 다면적으로 논의되는 작품(이선택 외, 2005: 130-145)으로, 그 논의를 정리하면 <춘향전>은 표층적으로 ‘열(列)’의 이념을 강조하고, 기생인 춘향이 열을 실천하고 정경부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상층 권력에 대한 하층민의 저항’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유교적 지배 질서를 강화하는 구심성, 유교적 지배 질서로부터 이탈하려는 원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시대 고전소설은 대부분 유교 이념의 구심성과 원심성이라는 일직선상 위에 놓인다. 유교 이념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라 해도, 여전히 유교 이념이라는 틀에 예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운몽>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있다. <구운몽>의 배경인 남악 형산은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이고,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전하는 『금강경』은 불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양처사가 신선 세계로 떠나는 장면 등 많은 사건들이 도선사상에 토대를 둔다. 더불어 양소유가 유가적 출세를 하면서 국가적인 충이 가정적인 효와 더불어 실행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구운몽>의 특성은 양가성으로 논할 수 있는데(정보미, 2012: 45-50), 양가성이란 대립적인 가치가 이중적 양상을 보이거나 대립적 체계가 공존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결합하기 힘든 두 개의 의미적,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결합될 때 이를 양가적이라 말한다. <구운몽>에는 작품의 세계 형상에 양가성이 내포되어 있다. 인물 층위에서 예를 들면, <구운몽>의 주요 인물 아홉 명은 계층에 적합한 역할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적 욕망을 표출하고 애정 지향성을 보인다. 즉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다.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므로 양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가성을 통해 <구운몽>은 한국 문화의 입체성과 다면성을 보여준다.

단, 〈구운몽〉의 규범성을 유교 질서로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성진은 불가의 수도승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전도(傳導)할 그릇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며 불가의 이상적 인물상이다. 즉 성진은 불가의 이상이 투영된 규범적 인물이다. 〈구운몽〉은 유교 이념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유교 이념은 물론, 불가 사상, 도가 사상이 종합적으로 융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더욱이 성진은 양소유로 환생한 후에도 유교적 입신양명을 추구하면서도 애정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인다. 이처럼 인물의 개인적 욕망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구운몽〉은 유교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문화의 원형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어교육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능숙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자국 문화에 대한 성찰, 상호문화적 인식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고급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화적 문식성을 함양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제재 선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즉 유교 이념을 다룬 고전소설 작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되, 〈구운몽〉과 같이 유교 이념을 넘어서 작품도 균형 있게 배치하면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다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더욱이 〈구운몽〉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지금, 여기’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제재로서 의의를 갖는다. 〈구운몽〉은 유교 이념이라는 당대 사회의 현실적 조건을 넘어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 구조는 욕망의 드러남에서 시작하고 몽유 체험을 통해 욕망과 이념의 통합을 이루어내며 욕망 자체를 성찰하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개된다(신재홍, 2012: 214).

이처럼 〈구운몽〉은 유교 이념에 기반한 다수의 조선시대 고전소설들과 달리,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욕망이 충족된 삶을 문제 삼으며 그로부

터 유한성의 한계라는 주제 의식을 보여준다(이상구, 2004: 199). 따라서 <구운몽>은 개인의 가치 및 욕망이 증시되는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문학 작품으로서 예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구운몽>을 제재로 활용한다면,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원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현대인의 삶을 성찰적으로 탐구하고 삶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IV. <구운몽>을 활용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

제2언어 교실에서의 문학 작품 선정과 관련하여 McKay(1982: 532)는 언어적 측면인 어휘의 난이도와 구문의 복잡성(예: 문장 길이)을 기준으로 학습자 수준에서 쉬운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적 문식성 교육에서 <구운몽>을 활용할 때에도 어휘의 난이도나 구문의 복잡성 측면에서 학습자 수준 및 학습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구운몽>은 전 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당대의 사유를 나타내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다면적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어휘나 문장 습득이 우선시되는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도리어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구운몽>은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구운몽>을 활용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을 논의하되, 대상을 고급 한국어 학습자로 한정한다.

한국어교육에서 <구운몽>의 제재로서 난이도 문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구운몽>의 여러 이본 중 어느 판본을 제재로 삼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구운몽>의 여러 이본 가운데 국문본인 서울대학교본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국문본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정보미, 2012: 12).

그렇지만 고급 학습자라 하더라도 한국어 학습자가 현대 국어가 아닌 판본을 대상으로 학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을 위해서는 제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 한국어로 작성된 <구운몽>을 제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중 도서 가운데 고등학생을 독자로 상정하여 펴낸 정병설(2013)의 『구운몽』이 원전에 대한 충실도나 난도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 작품을 토대로 교수·학습 활동 내용을 구성한다.

고급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안은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적 접근을 토대로 삼는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 신장은 수용 모델을 취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면서 공유 모델을 취하여 학습자가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역동적인 교섭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는 순환적 관계 속에서 실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수 방안으로는 김혜진(2017)에서 제시한 고전소설 교수 원리를 근간으로 삼는다. 이에 김혜진(2017)의 고전소설 교수 원리에 기반하여 <구운몽>을 활용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 산물의 수용과 이해’는 한국어 학습자가 문화 산물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문화 학습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 산물은 특정 문화가 생산한 문학, 민속, 예술 작품 등 구체물은 물론, 정치, 종교, 제도 등 무형의 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고전소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산물이면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관습, 풍속 등의 문화 산물들을 담고 있다. 고전소설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학습자는 목표 문화의 문화적 산물을 문화 요소로서 인식하고 한국인의 관점과 행위에 직결되는 문화적 특성을 배경지식으로 내면화한다.

이때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 산물로서 고전소설 자체가 아닌, 고전소설에 내재된 문화적 지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고전소설 작품 자체가 아닌, 그 속에 내재된 문화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이면서 전이도가 높게 교육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적 지식이란 고전 소설 제재에 내재된 문화 요소를 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단계를 ‘문화적 요소의 수용과 이해’로 재기술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문화 산물에 내재된 문화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습자가 <구운몽>을 탐독하고 <구운몽>에 내재된 문화적 요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가 직접 강독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읽도록 할 수도 있다. 다만 <구운몽>이 고전이기에 학습자가 평소 접하는 한국어와 다른 어휘나 표현이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 해석을 도와야 한다.

그러면서 교사는 <구운몽>에 담긴 한국 문화의 특성을 한국어 학습자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가 <구운몽>을 탐독하면서 사회적 제도, 관습, 풍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혹은 한국어 학습자가 직접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교사는 이를 통해 학습자가 <구운몽>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가치 규범을 탐구하며 작품 세계를 이해하도록 교육한다.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은 한국어 학습자가 목표 문화의 문화 산물을 수용하면서 문화 관점(cultural perspectives)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 관점이란 문화 산물의 기저에 내포된 인식, 신념, 가치, 태도 등을 말하며 문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의 지침이 된다. 이는 명시적일 때도 있으나 암시적이거나 함축적인 경우가 많다. 고전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사회의 윤리 규범이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그들의 행위 기저에는 문화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고전소설을 탐독하면서 한국 문화의 윤리 규범이나 가치 갈등 양상, 가치 실현 방식을 발견 및 해석하고 탐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구운몽>의 기저에 깔린 인식, 신념, 가치, 태도 등 문화 관점을 발견하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교섭하도록 한다. Ⅲ장에서 논

의하였듯 〈구운몽〉은 유교 이념은 물론, 불가 사상과 도가 사상이 종합적으로 융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 작품이다. 유교 이념은 중용, 자기 수양, 책임의식, 절제 등 인간의 욕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유교 이념을 표방한 고전소설에서는 그러한 덕목을 강조한다. 그와 달리 〈구운몽〉은 인간의 개인적 욕망의 실현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한국 문화의 이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는 한국어 학습자가 〈구운몽〉에 내재된 문화 관점을 발견하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교섭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구운몽〉에 담긴, 유교적, 불교적, 도교적 요소를 한국 문화의 원형이 되는 가치 체계로서 발견하고 탐색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구운몽〉의 세계관에는 유교적 현생과 불교·도교적 전생이 뒤얹혀 있다. 양소유가 성진으로 환생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서 효를 다하는 등 유교적 이념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작품 말미에 양소유가 환생을 마치고 천상으로 돌아옴으로써 단지 유가적 출세가 작품의 본질이 아님이 드러난다. 사실 양소유의 출세는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윤리의식을 발현하여 국가적 충을 실행했다기보다, 자신의 세속적 욕망에 충실하여 입신양명하는 과정에 가깝다.

교사는 이러한 지점에 불교적·도교적 가치가 담겨 있음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가치 체계가 유교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한국 문화를 다면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인식할 수 있게 지도한다. 교사는 유교가 가정이나 국가 등 현실 공동체의 질서와 화합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면, 불교와 도교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해탈을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면모가 강하다는 배경 등을 제시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가치체계를 다면적으로 수용하게 지도할 수 있다. 아울러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입신양명은 공동체 지향의 욕망과 개인적 차원의 욕망을 동시에 성취하는 과정임을 안내하고, 이로부터 한국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탐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문화적 문식성 신장이란 측면에서 <구운몽>을 읽고 한국인의 삶과 세계를 탐구해 보는 학습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 ‘<구운몽>이 한국인의 삶과 세계를 형상화한 고전소설이라 할 때 어떠한 점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글로 써보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은 한국어 학습자가 <구운몽>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원형을 내재한 고전소설임을 감지하고 이에 초점화하여 작품을 주도적으로 탐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양가성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 문화 안에서 드러나는 이질성, 예를 들면 가족주의 및 공동체 지향적 면모와 개인의 안녕과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한국 문화를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탐색하도록 한다.

‘문화 실행과 적용’은 한국어 학습자가 문화를 실행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 실행(cultural practices)이란 문화적 관습이나 규범에 참여할 때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행위를 말한다. 학습자는 고전소설을 해석하면서 주체적으로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 실행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고전소설을 읽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면서 탐구하고 그 내용을 다시 현재 자신의 삶 및 문화에 적용하면서 문화적 문식성을 역동적으로 습득하고 문화 창조 역량을 발현한다. 이때 ‘적용’이란 개념은 목표 문화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한국어 사용에 알맞게 맞추어 쓴다는 의미가 강하여 일방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 실행과 창조’로 수정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역동적인 교섭 속에 혼성적으로 창출된 문화를 실행하고 창조하는 과정으로 재기술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기반으로 한국 문화와 자신의 소속 문화 간의 혼성을 통해 새로운 문화 관점을 창출하고 문화 경험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 문화와 관련된 자신만의 초점화된 관점을 형성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구

운몽)을 해석하면서 현대사회의 맥락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구운몽>이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이다. <구운몽>에 내재된 가치관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자신에게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탐구하거나, 자신이 성진이나 양소유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 것인지 상상하여 서사를 창작해 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혹은 <구운몽>과 상호텍스트적인 연관을 갖는 자국 문화의 문학텍스트를 떠올려 보고 두 텍스트를 혼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자국 문화와의 혼성을 통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탐색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의 이해를 넘어서 문화 간의 역동적인 교섭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생성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일례로 다음 장면에 나타난 불교적 사상을 탐색하면서 문화 실행과 창조를 모색할 수 있다.

설법을 마칠 때 『금강경』에 있는 네 구의 계송(偈頌), 곧 “세상만사가 모두 꿈같고 물거품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세상은 이렇게 불지라”를 외었다. 성진과 여덟 비구니가 단번에 깨달아 적멸(생사 번뇌의 괴로움을 끊는 일)의 큰 도리를 얻었다.

(중략)

이후 성진은 연화도량에서 크게 불법을 베풀었고 대중을 이끌었다. 신선과 용왕, 사람과 귀신이 모두 성진을 육관대사와 같이 존중했다. 여덟 비구니 역시 성진을 스승으로 모셔 보살의 큰 도리를 얻었다. 마침내 모두 극락으로 갔다.

위 장면에는 불교의 공(空) 사상과 열반(깨달음)이 담겨 있다. <구운몽>에 내재된 공 사상과 열반을 주제의식과 관련지어 심층적으로 탐색하도록

하고 자국 문화에 이와 유사한 사상이나 관점이 존재하는지 자문하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탐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자신의 삶의 지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성찰하도록 교육한다.

V. 마치는 말

본고에서는 <구운몽>을 활용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 신장의 기본 구도로 ‘수용 모델’과 ‘공유 모델’의 순환적 관계를 상정하고 목표 문화로서 한국 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로서 <구운몽>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운몽>을 통해 수용 모델에서 공유 모델로 나아가는 구도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교수·학습 방안이 이론적 체계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법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구운몽>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 본 논문은 2024.10.30. 투고되었으며, 2024.11.14. 심사가 시작되어 2024.12.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자료

김만중, 정병설 역(2013), 『구운몽』, 파주: 문학동네.

논저

공나형·이경화·전성규(2023),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의 문학작품 활용 양상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소나기』와 『홍부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4, 87-125.

김혜진(2017),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고전 소설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진(2018), 「〈춘향전〉 교육을 통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력 양상 연구: 중국인 한국어교육 전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116, 369-396.

민병곤·김호정·구본관·민현식·윤여탁·김종철·고정희·윤대석·강경민·김가람·김영미·김지혜·김혜진·신현단·유민애·이성준·이수미·이슬비·홍은실(2020), 『한국어 교육학 개론』, 파주: 태학사.

박은진(2015), 「국어교육의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57, 133-168.

박은진(2018), 「문화적 문식성 교육에서 ‘공유 모델’ 구현의 방향」, 『인문사회 21』 9(4), 221-236.

박인기(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23-5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교육학 사전』, 서울: 夏雨.

설성경(2012), 『구운몽의 비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신재홍(2012), 『한국 문유 소설 연구』, 서울: 역락.

유현정(2018),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적 문식성 연구」, 『어문연구』 46(3), 369-393.

윤여탁(2013), 「다문화 사회의 문식성 신장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전략: 문학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4, 7-29.

이상구(2004), 「『구운몽』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상」, 『민족문화사연구』 25, 187-213.

이상택·박희병·임치균·조광국·이주영·정병설·송성옥·류준경·이승복·이창현·서인석·조태영·김탁환(2005),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파주: 돌베개.

이재룡(2021), 「한국 사회윤리의 사상사적 기저」, 『사회사상과 문화』 24(3), 305-341.

정길수(2010), 『구운몽 다시 읽기』, 파주: 돌베개.

정보미(2012), 「〈구운몽〉의 세계 형성과 세계 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홍원(2015), 「문화적 문식성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방법적 회의」, 『국어교육연구』 36, 595-633.

Hirsch, E. D.(1988),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 To Know*, New

- York: Vintage Books.
- McKay, S. (1982),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4), 529-536.
- Provenzo, Eugene F. Jr. (2005), *Critical literacy: what everyone ought to know*, Paradigm Publishers.
- Stern, H. H. (1992),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고전소설을 활용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신장 방안

— 김만중의 〈구운몽〉을 중심으로

신다솔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한국어 문화의 가치 체계를 수용하는 ‘수용 모델’과 학습자가 자국 문화와 한국어 문화 간의 역동적인 교섭 속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창조하는 ‘공유 모델’을 기본 구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교 이념에 갇히지 않고 한국 문화의 표면과 이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구운몽〉을 선정하여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다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한국 문화를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해석하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수 원리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문화적 지식의 수용과 이해’, ‘문화 관점의 발견과 해석’, ‘문화 실행과 창조’로 제안하고 〈구운몽〉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문화적 문식성, 고전소설, 구운몽,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고급 학습자

ABSTRACT

Increasing Cultural Literacy of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Using Classic Novels

— Focusing on Kim Man-joong's Ku-un-mong

Shin Dashol

This study aimed to derive a method to increase the cultural literacy of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using classic novels. To this end, an approach that encompasses the “Acceptance Model”, in which knowledge is transferred to advanced learners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cultural literacy, and the “Sharing Model”, in which learners share knowledge and form culture, is take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we focused on acquiring the value system of Korean culture from an acceptance model perspective and on enabling learners to learn Korean through dynamic negotiation between their native culture and Korean culture from a shared model perspective. In addition, Ku-un-mong was selected as a work that comprehensively shows the surface and ideology of Korean culture without being confined to Confucian ideology, and an educational method was sought to help learners interpret Korean culture, which has complex characteristics, and creates new meaning. The teaching principles included “acceptance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knowledge”, “discovery, interpretation and negotiation of cultural perspectives”, and “cultural implementation and creation”. In the end, a teaching-learning method was proposed that moves from an acceptance model to a sharing model based on Ku-un-mong.

KEYWORDS Cultural Literacy, Classic Novels, Ku-un-mong, Korean Education, Culture Education, Advanced Korean Learners